

朝鮮時代 간행된 小學 諺解本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Annotations of Sohak in the Joseon Dynasty

申 政 燁 (Shin, Jung-Yub)*

◁ 목 차 ▷

1. 서 언	4.2 『小學諺解』
2. 小學의 성립과 전래	4.3 『小學閩範』
2.1 소학의 성립	4.4 『小學諸家集註』
2.2 소학의 전래	5. 판본분석 및 계통
3. 冊板·書冊目錄에 나타난 小學	5.1 판본별 분석
언해본	5.2 간행시기별 분석
3.1 책판목록	5.3 간행처별 분석
3.2 서책목록	5.4 系統
4. 小學 언해본의 판본	6. 결 언
4.1 『翻譯小學』	

< 초 록 >

소학은 아동용 수신서로서 1187年 朱熹와 劉清之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麗末에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널리 배포, 교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印刊된 소학 언해본의 전체 판본을 개관하고 시기별, 간행처별, 계통별 분석을 통해 소학의 간행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소학 언해본 판본은 서명을 기준으로 모두 5종이 나타났고, 전국 29곳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판본은 서명을 기준으로 총 4종, 판본수로는 모두 15종이 조사되었다. 이를 나열하면 『翻譯小學』, 『小學諺解』, 『小學閩範』, 『小學諸家集註』 등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판본은 16世紀에 간행된 『翻譯小學』이다.

한편, 현존하는 소학 언해본 가운데 금속활자본이 2종, 목판본은 모두 13종으로 나타났다. 간행처별로는 중앙의 校書館 등에서 주로 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인쇄하였고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준 활자본을 번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존본에 의하면 瀛州, 咸營 등지에서 소학의 印刊이 이루어졌고 19世紀末~20世紀初에 세워진 新舊書林, 滙東書館, 光東書局 등 여러 書鋪에서는 전해져 오는 金屬活字本들을 翻刻하거나 行字數를 바꾸어 木板本으로 다양하게 간행하였다.

要語 : 小學, 小學諺解, 翻譯小學, 小學諸家集註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bibi43@hanmail.net)

접수일: 2009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6일

<ABSTRACT>

『*Sohak*(小學)』, the book for teaching ethics to children, compiled by Ju Hui(朱熹) and Riu Cheongji(劉清之) in 1187, was imported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高麗) and widely distributed and taught in the Joseon Dynasty(朝鮮). This study intends to outline the entire editions of Korean annotations of *Sohak*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 the trend of publishing those Korean annotations by analyzing the periods and places of their publication and systems.

Five titles of the Korean annotations of *Sohak* were included in *Chaekpanmokok*(冊板目錄), and woodblocks of these books were located in 29 places in the country. The presently-existing editions were 4 titles, including 『Beonyeok *Sohak*(翻譯小學)』, 『*Sohak* Eonhae(小學諺解)』, 『*Sohak* Gyubeom(小學閩範)』, and 『*Sohak* Jegajipju(小學諸家集註)』 and a total of 15 titles were examined. The earliest edition was 『Beonyeok *Sohak*』 published in the 16 century.

Of the currently existing editions, two titles were prints with metal movable types and 13 titles were woodblock prints. An analysis of the places of publication shows that some were printed with movable types by Gyoseogwan(校書館), etc. and local publications were mostly the reproductions of movable type prints dis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editions, *Sohak* was published in such places as Yeongju(瀛州) and Hamyeong(咸營). Also, many private bookstores, including Singuseorim(新舊書林), Hoidongseoguan(滙東書館), Gwangdongseoguk(光東書局), etc., printed various woodblock editions of *Sohak* by reproducing woodblocks from metal movable type prints previously published or changing the number of lines and letters from the original prints.

Key words : *Sohak*, *Sohak* Eonhae, Beonyeok *Sohak*, *Sohak* Jegajipju

1. 서 언

高麗末 주자 성리학의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전래된 소학은 성리학의 기본교재이면서 아동용 수신서로 朝鮮朝 전대에 걸쳐 널리 보급, 교육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한 기본은 교화이고 교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조선의 왕들은 학교 교육을 장려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로 소학을 채택하였다. 太宗 7年(1407) 3월에 權近(1352~1409)은 왕에게 『勸學節目』을 올리면서 소학을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 배우게 하고, 生員試 시험과목으로 정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이 후에 8세 이상의 아동들은 모두 소학을 배우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었다.

中宗朝에는 왕의 소학 장려 정책과 더불어 士林에 의해 소학이 중시되었다. 또한, 아동 및 부녀자를 비롯한 일반 백성들의 소학교육을 위해 諺解본인 『翻譯小學』을 편찬, 간행하였고 宣祖朝에는 『小學諺解』를 간행하였다.

18세기 英祖朝에는 이전의 소학 중시 경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한층 더 소학을 강조하였는데 『小學諸家集註』의 訓義 작업이 왕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御製序가 붙은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학은 活字本, 木板本 등 여러 종류의 출판 형태로 전국各地에서 印刊되었고 또한 아동, 부녀자를 비롯한 일반서민들이 배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많은 주석서와 언해본이 편찬,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소학 교육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단연 언해본의 편찬과 보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소학 언해본의 여러 판본을 조사하고 시기별, 간행처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 계통을 세우고자 한다. 여기에 앞서 중국에서 소학의 성립과 우리나라로의 전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책판목록, 서책목록 등에 기록된 소학 언해본을 조사하여 지역별,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小學의 성립과 전래

2.1 소학의 성립

2.1.1 소학의 편찬

소학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三代시대에는 大學에 대칭되는 초등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본을 지칭하였고 漢代 이후부터 문자의 形象, 訓詁, 音韻을 연구하는 文字學을 소학이라 하였다. 『漢書藝文志』의 「小學類」에는 字書類가 실려 있고 宋代 이후부터 「小學類」에 字書類와 童蒙書類가 함께 실렸으며 清代에는 이상의 의미와 함께 考證學을 소학이라 불렀다.¹⁾

한편, 北宋時代에는 ‘蒙養之書’를 소학이라 하였으며 南宋시대에 와서는 주희가 편찬한 동몽교재를 소학이라 지칭하였다. 이와 같이 소학은 학교, 蒙養之書, 문자학, 고증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조선조 이후 소학은 일반적으로 주희의 소학을 지칭하고 있다.²⁾

주희는 「小學題辭」에서 소학의 편찬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秦始皇의 焚書로 인해 모든 經典이 사라지고 三代의 이상적인 교육이 해이해져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훌륭한 인재가 없으므로 후학을 일깨우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소학은 주희와 그의 門人인 劉清之가 공동 작업을 통해 편찬한 것으로 淳熙 14年(1187), 주희가 58세 되던 해에 완성되었다. 실질적인 편찬은 유정지가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1185년에 시작하여 1187년에 草稿를 완성하였고 주희는 그것을 校閱, 修正하여 「小學書題」와 「小學題辭」를 붙인 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1) 李樹健, “李朝時代 小學教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論文集』 第2輯(1968), 250.

2)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傳類 小學 小學古今二學辨證說.

2.1.2 소학의 내용과 체제

소학의 내용은 『論語』, 『孟子』 비롯한 『禮記』의 「曲禮」·「學記」, 「內則」·「王制」·「樂記」 등과 『管子』, 『國語』 등에서 비롯되었다. 소학은 전체적으로 內外 2篇 386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內篇에는 「立教」, 「明倫」, 「敬身」, 「稽古」, 外篇에는 「嘉言」, 「善行」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본문에 앞서 書頭에는 책의 성격과 편찬의도를 밝히고 있는 「小學題辭」와 주자의 교육관을 나타낸 「小學書題」가 실려 있다.

먼저, 「立教」은 모두 13장으로 교육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胎教와 아동훈육법, 교육하는 법도, 사제간의 본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明倫」은 모두 108장으로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倫理를 밝힌 것이다. 「稽古」, 「嘉言」, 「善行」의 내용까지 모두 합치면 총 225장으로 소학 내용 가운데 58%를 차지한다. 이는 소학의 중심 내용이 五倫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敬身」은 개인 내·외적인 생활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를 서술한 것으로 모두 4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稽古」, 「嘉言」, 「善行」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총 119장으로 「明倫」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稽古」는 春秋時代 이전 각종 사료에서 立教, 明倫, 敬身に 부합하는 실례를 든 것으로 모두 47장이다.

「嘉言」은 漢代 이후 명현의 격언과 명가의 가훈을 모은 것이고 「善行」은 선현들의 훌륭한 행실을 모아놓은 것이다.

2.2 소학의 전래

2.2.1 고려시대

소학이 국내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麗末 安珣(1243~1306), 白頤正(1247~1323) 등의 유학자들에 의해 朱子學이 유입된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³⁾ 주자학은 南宋에서 元을 거쳐 고려로 유입되었는데⁴⁾ 元의 경우 姚樞(1203~1280)와 許衡(1209~1281)에 의해 수용, 발전되었다. 특히, 허형은 ‘소학을 神明처럼 믿고 부모처럼 공경한다’⁵⁾고 할 만큼 소학을 尊崇하는 인물이었으며 儒生들의 학습에 있어서도 章句가 아닌 소학에 종사하기를 강조하였다.⁶⁾

한편, 원에서 고려로의 유입은 백이정을 비롯한 權溥, 안향 등을 시작으로 李穡, 鄭夢周, 李崇仁, 權近, 吉再 등 麗末의 대유학자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었다.⁷⁾ 安珦이 忠宣王을 따라 元에 다녀 온 이후 金文鼎 등을 중국 관내에 보내 孔子 및 70제자의 초상화와 함께 祭器, 樂器, 六經, 諸子史 등의 기물과 서책을 구해 오도록 하였으며⁸⁾ 忠肅王 元年(1314) 6월에는 博士 柳衍 등이 중국에서 經籍 1만8백권을 구입해 왔으며⁹⁾ 同年 7월에는 元 皇帝가 宋의 秘閣 藏書 4천3백71책, 1만7천권을 선사하였다¹⁰⁾는 기록이 있어, 이러한 經書의 유입과 함께 소학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李穀(1298~1351)이 小學校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灑掃應對進退’의 절차를 언급한 것과 李穡이 克己復禮를 이루기 위한 절차로 소학의 절목 가운데 立教와 明倫을 제시한 것은 모두 소학이 麗末에 유입되어 지식인 사이에서 수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¹¹⁾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학의 전래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소학이 주자학의 기본 교재임을 감안할 때 주자학의 유입과 동시에 국내에 전래

3) 李樹健(1968), 256.

4)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彙纂麗史儒學傳 木齋洪汝河.

5) 『小學集註』 小學集註總論.

6) 『世宗實錄』 世宗 21年 9月 甲戌(條).

7) 李樹健(1968), 257.

8) 『高麗史』 卷105 列傳 第18 安珦傳.

“博士金文鼎等送中原畫先聖及七十子像并求祭器樂器六經 諸子史以來”

9) 『高麗史』 卷34 世家 第34 忠肅王 元年 6月(條).

“初成均提學司遣博士柳衍學諭俞迪于江南購書籍未達而船敗衍等赤身登岸判典校寺事洪昂以太子府參軍在南京遺衍寶鈔一百五十錠使購得經籍一萬八百卷而還”

10) 『高麗史』 卷34 世家 第34 忠肅王 元年 7月(條).

11) 朴順南, “高麗末 知識人의 小學 수용에 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제17집(2003), 79.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經書가 대량으로 유입되던 시기에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2.2 조선시대

조선의 역대 왕들은 학교 교육에 힘썼으며 특히, 소학의 교육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太祖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중앙의 國學과 지방의 鄕校에 生徒를 확충하고 講學에 힘쓰게 하였고¹²⁾ 太宗朝 權近은 『勸學節目』을 통해 小學이 人倫 世道의 중요한 책임을 밝히면서 京中·外方의 教授官들로 하여금 소학을 먼저 講하게 하고 生員試 즉, 成均館 升補試에 앞서 成均正錄所로 이 글의 通否를 상고하여 응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¹³⁾ 그 후, 『續六典』에 법제화되어 8세 이상의 아동들은 모두 學堂에 보내어 소학을 배우게 하고 15세 이상으로 소학이 성취된 자는 考講하여 通한 자만 성균관에 올려 大學을 가르친다 하였다.¹⁴⁾

한편, 文宗이 8세가 되던 해 세종은 ‘人生八歲入學’의 옛 제도에 따라 入學禮를 거행하면서 세자로 하여금 『小學題辭』를 講하게 하였다.¹⁵⁾ 또한 소학 교육의 진흥책으로 生員覆試, 武科殿試, 成均館入學 및 講書 등에 소학을 考講하게 하였다.¹⁶⁾ 이러한 소학 장려책과 더불어 소학 서적의 간행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世宗 7年(1425)에는 明으로부터 『集成小學』 100권을 사오게 하였고¹⁷⁾ 同王 17年(1435)에는 『集成小學』 萬餘本을 주자소에 있는 책판으로 찍게 하였다.¹⁸⁾

中宗朝의 소학교육은 이전 왕들의 文風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종종 자신의 소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광조를 위시

12) 『太祖實錄』 太祖 元年 7月 丁未(條).

13) 『太宗實錄』 太宗 7年 3月 戊寅(條).

14) 『文宗實錄』 文宗 元年 4月 癸巳(條).

15) 『世宗實錄』 世宗 3年 12月 甲寅(條).

16) 李樹健(1968), 260.

17) 『世宗實錄』 世宗 7年 12月 戊子(條).

18) 『世宗實錄』 世宗 17年 4月 己酉(條).

한 사람의 소학존숭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김굉필은 소학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자신을 ‘小學童子’로 일컫을¹⁹⁾ 만큼 소학을 존숭한 인물이었다. 또한 일반 서민과 부녀자들, 궁궐에서부터 여염의 小民에 이르기까지 소학을 교육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로 언해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완성된 언해본을 간행하여 중외에 널리 반포하였다.

宣祖 21年(1588)에는 校正廳으로 하여금 언해본을 편찬, 간행케 하였고 光海君 4年(1612)에는 전해지던 여러 학자들의 諸說을 모은 李珥 편찬의 『小學諸家集註』가 목활자로 印行되었다. 또, 肅宗 20年(1694)에는 李德成을 시켜 서문을 쓰게 하고 다시 『小學諸家集註』를 印刊하였으며 다음해 3月에는 世子の 入學禮를 거행하면서 세자에게 『小學』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²⁰⁾

18세기 英祖는 朝官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교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기초적 성리학서인 소학을 보급, 교육하였다.²¹⁾ 英祖 20年(1744)에는 이이의 『小學諸家集註』에 章마다 註를 달게 한 宣政殿訓義 『小學諸家集註』를 편찬하였고 같은 시기에 御製序를 붙여 『小學諺解』를 편찬, 간행하였다. 그리고 1759年 閏6月에는 소학을 권하는 倫勸을 쓰라 命하면서, 灑掃와 應對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임을 재차 강조하였고²²⁾ 자신을 ‘小學童子’로 자처하기도²³⁾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 소학의 교육과 진흥은 대부분 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다양한 소학 장려정책과 소학 서적의 활발한 간행을 통해 위로 왕세자, 사대부에서 아래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소학을 교육하였다.

19) 『海東野言』 二 成宗. “...手不釋小學 人或問國家事 必曰 小學童子何知大義...”

20) 『肅宗實錄』 卷28 肅宗 21年 3月 癸酉(條).

21) 정경희,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韓國學報』 第97輯(1999), 78.

22) 『英祖實錄』 英祖 35年 閏6月 甲申(條).

23) 『英祖實錄』 英祖 42年 5月 丙子(條).

3. 册板·書册目錄에 나타난 小學 언해본

3.1 책판목록

『攷事撮要』, 『慶尙道册板』, 『册板置簿册』,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嶺湖列邑所在册板目錄』, 『古册板有處攷』, 『各道册板目錄』, 『鏤板考』, 『書册目錄』, 『各道册板目錄』 등의 책판목록에 나타난 소학 언해본은 서명별로 『小學諺解』, 『小學大全諺解』, 『訓義小學諺解』, 『訓義小學大全諺解』, 『御製小學諺解』 등 5종이다. 이것을 시기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仁祖 14年(1636)의 발문이 있는 무신자본 『攷事撮要』²⁴⁾에 처음으로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宣祖朝에 간행된 『小學諺解』 혹은 이와 동일 계통의 판일 가능성이 높다. 1750년에는 『訓義小學諺解』가 처음 소개되는데 英祖 20年(1744)에 간행된 『小學諺解』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咸興에서 간행된 『御製小學諺解』 또한 시기적으로 보아 같은 계통의 판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으로 18세기후반에 소장지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 시기에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조, 정조대의 소학 장려책과 더불어 과거시험에서 講書를 중시한 것과 관계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14곳, 전라도 4곳,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각 2곳, 충청도 1곳에서 책판을 소장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상도에서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었다.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1814년경에 작성된 『鑄字所應行節目』에는 ‘(小學大全)諺解 二百四十八板 辛酉自原營上來’라 기록되어 있어 辛酉年(1801)에 강원도 감영인 原營에서 주자소로 소학언해 책판을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또, 1815년경의 『書册目錄』에는 ‘小學諺解 白紙十四束八張 禮安移去’, ‘小學諺解 白紙十四束八張 安東移來’라는 기록이 있어 원래 安東에 소장 중이던 책판이 禮安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24) 고려대, 연세대 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소장.

< 표 1 > 地域別로 간행된 소학 언해본 책판

地域		冊板目録	攷事撮要	慶尙冊板	冊板置簿	三南所藏	諸道冊板	完營冊板	嶺湖列邑	古冊有放	各道冊板	鏤板考	書冊目錄	各道冊板	
			1636	1730	1740	1743	1750	1759	1760	1776	1778	1796	1815	1840	
慶尙道 (14)	居昌										訓義小學	小學	小學		
	慶尙監營										訓義小學大全				
	慶州					小學	小學				小學	小學	小學	小學	
	金海												小學		
	大丘								訓義小學					小學 /訓義小學	
	善山										小學	小學		小學	
	安東												小學		
	嶺南觀察營											小學			
	禮安								小學		小學	小學	小學	小學	
	醴泉										小學	小學		小學	
	蔚山		小學	小學								小學	小學大全	小學	
	晉州						小學	小學							
	淸道											訓義小學	小學	訓義小學	訓義小學
	陝川											小學			
全羅道 (4)	全羅監營						訓義小學								
	全州													小學大全	
	濟州								小學						
	湖南觀察營											小學			
京畿道 (2)	校書館	小學													
	廣州														
江原道 (2)	原州											小學			
	春川									小學	小學				
黃海道 (2)	海西觀察營											小學			
	黃海監營											訓義小學			
平安道 (2)	關西觀察營											小學			
	平安監營											小學大全			
咸鏡道 (2)	咸鏡監營			小學											
	咸興											御製小學			
忠淸道 (1)	報恩				小學大全	小學大全	小學								

※ 전체 서명 가운데 마지막에 '諺解'는 생략하여 표기하였다.

3.2 서책목록

17세기에 편찬된 『海東文獻總錄』에는 소학 언해본으로 『翻譯小學』 1권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18세기에 만들어진 서책목록을 살펴보면, 먼저 『西庫藏書錄』에는 經書類에 『小學』, 『訓義小學』과 함께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다. 『小學』 4건과 『訓義小學』 3건은 ‘木’이라 표시하여 목판본임을 나타내고 『小學諺解』 4건은 ‘鑄’로 표시하여 금속활자본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와 현존하는 금속활자본을 미루어 볼 때 英祖朝에 戊申字로 간행된 『小學諺解』로 추정된다. 『西序書目籤錄』에는 羣經類에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으며 『西序書目草本』에는 小學類에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다.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서책목록으로는 『寶文閣目錄』, 『春坊藏書總目』, 『學部編輯局書冊目錄』, 『嶺南各邑校院書冊錄』, 『書籍目錄臺帳』 등이 있는데 純祖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寶文閣目錄』에는 「小學」에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다. 1905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春坊藏書總目』에는 經書類에 『小學大全諺解』, 內下別峙에 『小學抄略諺解』, 追錄類에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經書類 新件의 내용을 보면 『小學大全』과 『小學大全諺解』 각 20질을 修學院에서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追錄類의 『小學』과 『小學諺解』는 英親府에서 가져온 것이라 되어 있다.

조선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學部編輯局書冊目錄』에는 經書部에 『小學諺解』가 수록되어 있고 조선후기 嶺南의 4개 지역 내 鄕校, 書院 소장의 장서 목록인 『嶺南各邑校院書冊錄』에는 西岳書院에 『小學大全』과 그 언해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수록하였다. 또 『書籍目錄臺帳』의 「朝板子部書籍目錄」에 『小學諺解』, 『小學抄略諺解內篇』, 『小學抄略諺解外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책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학 언해본은 『翻譯小學』, 『小學諺解』, 『小學大全諺解』, 『小學抄略諺解』 등이다. 책판목록에는 없었던 『小學抄略諺解』가 나타나는데 19세기초에 인행된 『小學抄略』의 언해본으로 보인다. 현재 『小學抄略諺解』는 전해지지 않고 純祖 15年(1815) 校書館에서 인행한 『小學抄略』은 전해지고 있다.

4. 小學 언해본의 판본

현존하는 소학의 언해본은 서명별로 『翻譯小學』, 『小學閩範』, 『小學諺解』, 『小學諸家集註』 등 4종, 판본은 모두 15종이 조사되었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은 16世紀에 간행된 乙亥字 翻刻本 『翻譯小學』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을해자로 찍은 『翻譯小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과 함께 현존하는 소학 언해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 諺解本 小學 版本

서명	권책수	간행사항	판본	형태사항	소장기관
翻譯小學	卷6-9 零本 3冊	16世紀	乙亥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3.6×16.0cm, 有界 9行19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 有紋, 黑魚尾	· 고려대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
小學諺解	卷2 零本 1冊	校書館, 1588	經書字本	四周雙邊, 半匡: 24.5×16.8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경북대도서관 · 陶山書院
	卷1-2.6 零本 2冊	17世紀	經書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3.8×17.2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고려대도서관 · 규장각
	卷6 零本 1冊	咸營, 1649	經書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3.8×17.0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2葉花紋, 有紋魚尾	· 개인
	卷6 零本 1冊	濟州鄉校, 1685	經書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3.4×16.7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2葉花紋, 黑魚尾	· 장서각
	卷6 零本 1冊	17世紀	經書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4.4×17.6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2葉花紋, 有紋魚尾	· 계명대도서관
	卷3-5 零本 2冊	肅宗年間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1.3×16.5cm, 有界 9行19字, 上下內向2-3葉花紋, 有紋魚尾	· 고려대도서관 · 영남대도서관
	6卷 4冊	18世紀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0.2×16.7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영남대도서관
	卷1-2 零本 1冊	1744	戊申字本	四周雙邊, 半匡: 25.0×17.0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국립중앙도서관 · 영남대도서관
	卷6 零本 1冊	19世紀	戊申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4.2×16.8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경기대도서관 · 규장각
	6卷 5冊	京城: 新舊 書林, 1913	木板本	四周單邊, 半匡: 22.0×16.4cm,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경북대도서관 · 영남대도서관
	6權 5冊	全州: 七書 房, 1916	戊申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2.2×16.7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경북대도서관 · 국회도서관
	6卷 5冊	京城: 新舊 書林, 1918	戊申字 翻刻本	四周雙邊, 半匡: 23.1×16.8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
小學閩範	3卷 1冊	瀛洲, 1845	木板本	四周單邊, 半匡: 22.0×17.7cm, 有界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장서각
小學諸家集註 (諺解本)	卷5-6 零本 1冊	京城: 新舊 書林, 1917	木板本	四周單邊, 半匡: 18.7×12.6cm, 有界 11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	· 연세대도서관 · 전북대도서관

4.1 『飜譯小學』

『飜譯小學』은 中宗 13年(1518) 王命에 의해 金銓, 崔淑生, 金安老 등이 明의 何士信이 편찬한 『小學集成』을 底本으로 언해하여 간행한 책이다. 南袞이 지은 跋文에 의하면 이 책은 아동과 부녀자를 비롯한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간행하였다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번역의 방식은 直譯이 아닌 意譯 형식을 취하고 있다. 南袞의 跋文 다음에는 번역에 참여한 찬집청 관원 1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小學集成』을 底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본의 권책수와 같이 10권 10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零本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乙亥字本일 것이라 추정되는 原刊本은 전해지지 않고 乙亥字 飜刻本이 고려대 도서관에 卷6~9 零本 3冊, 卷8 零本 1冊, 국립중앙도서관에 卷10 零本 1冊, 규장각에 卷9 零本 1冊, 그리고 개인 소장 卷3~4 零本 1冊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 1> 乙亥字 飜刻本 『飜譯小學』의 卷首題 부분

이 중에서 고려대 만송문고에 소장된 『翻譯小學』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3.6cm, 가로 16.0cm이며 行字數는 9행 19字이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 有紋魚尾이며 版心題는 ‘小學’이다. 본문 내 傍點이 있고 ‘ㅇ’, ‘△’이 쓰이고 있으며 어미내 ‘김’ 등의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4.2 『小學諺解』

4.2.1 經書字本 『小學諺解』

程愈의 『小學集說』을 底本으로 宣祖 21年(1588)頃 王命에 의해 校正廳에서 편찬하고 校書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小學諺解凡例』에는 이 책의 편찬동기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中宗 때의 『翻譯小學』이 너무 意譯에 치우쳐서, 意譯이 아닌 直譯의 형태로 大文을 逐字的으로 번역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分註를 달아 풀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卷末의 李山海 跋文에는 소학의 번역과 인출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宣祖 18年(1585)에 國譯 經書의 校正을 위해 校正廳을 설치하고 儒臣을 선발하여 小學을 번역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宣祖 19年(1586) 여름에 번역작업이 마무리 되고 이를 진상하니, 왕이 校書館으로 하여금 인출을 명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跋文을 쓰게 하였다²⁵⁾고 기록하고 있다. 李山海의 跋文에 이어 책의 간행에 참여한 諸臣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금속활자인 經書字로 찍은 인본을 살펴보면, 陶山書院에는 ‘萬曆十六年正月日 內賜陶山書院小學諺解一件 左承旨臣朴(手決)’의 內賜記가 있는 『小學諺解』 全帙이 소장되어 있는데, 宣祖 21年(1588)頃에 찍어 頒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小學諺解』 小學諺解跋.

“...萬曆乙酉春設校正廳選儒臣若干人使之釐正舊本刪去繁冗逐字作解要以不失丈義爲重皆...上旨也翌年夏事訖即繕寫投進上可之下芸閣印出累十百件仍命臣跋其尾...萬曆十五年丁亥...李山海拜手稽首敬跋”

경북대 도서관에도 零本 2冊이 소장²⁶⁾되어 있는데 그 형태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4.6cm, 가로 16.9cm이며 行字數는 10行 19字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본문 내 傍點이 있고 중성에 ‘ㅎ’가 쓰이고 있으며, ‘△’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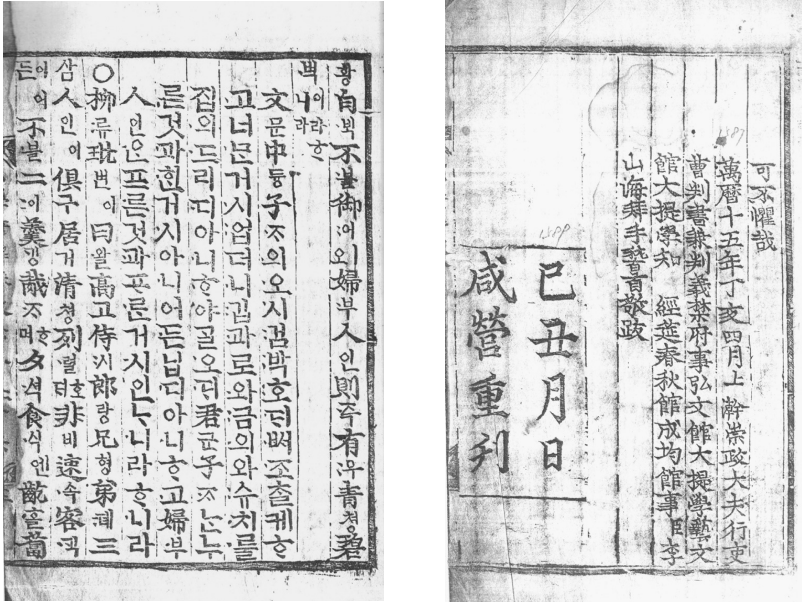
<그림 2> 經書字本 『小學諺解』

4.2.2 규장각 소장 經書字 飜刻本 『小學諺解』

규장각에 소장²⁷⁾된 經書字 飜刻本으로 권수제 아래에 ‘校書館上’이 필사되어 있다.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邊欄의 크기는 세로 23.8cm, 가로 17.2cm이며 行字數는 10行 19字이다. 魚尾의 형태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6) 청구기호: 卷1 零本 1冊(167-17), 卷2 零本 1冊(167-18).

27) 청구기호: 奎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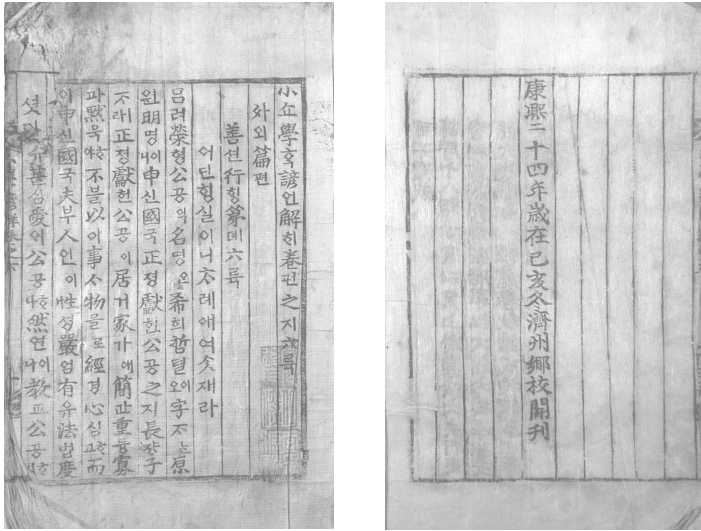


<그림 4> 咸營 刊行 經書字 飜刻本 『小學諺解』

4.2.4 濟州鄉校 刊行 經書字 飜刻本 『小學諺解』

1685年 濟州鄉校에서 간행한 經書字 飜刻本이다. 晋州柳氏 帽山宗宅 기탁본으로 현재 卷6 零本 1冊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卷末에는 李山海의 跋文이 있고 이어서 ‘康熙二十四年歲在己亥冬濟州鄉校開刊’의 간기가 나와 있다.

이 책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3.4cm, 가로 16.7cm이며 행자수는 10行 19字이다. 어미의 형태는 上下內向2葉花紋, 黑魚尾이다. 傍點은 없고 ‘ㅎ’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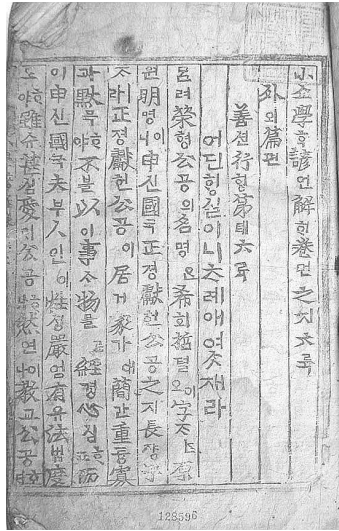
<그림 5> 濟州鄉校 刊行 經書字 翻刻本 『小學諺解』

4.2.5 傍點이 없는 經書字 翻刻本 『小學諺解』

經書字本 『小學諺解』의 翻刻本 계열로 傍點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은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²⁸⁾되어 있는데 卷6 零本 1冊으로 卷末에 李山海의 跋文이 있다.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4.4cm, 가로 17.6cm이며 行字數는 10行 19字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內向2葉花紋, 有紋, 黑魚尾 등 다양하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傍點이 없으며 ‘ㅇ’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소개한 濟州鄉校 刊行本과 한글 표기, 傍點의 유무, ‘ㅇ’의 사용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8) 청구기호: (이)180.792이이서-4.



<그림 6> 傍點이 없는 經書字 翻刻本 『小學諺解』의 卷首題 부분

4.2.6 9행 19자 『小學諺解』

이 소학언해는 肅宗 18年(1692)에 金賓에게 內賜된 책²⁹⁾으로,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3cm, 가로 16.0cm, 行字數는 9行 19字, 魚尾는 上下內向3 葉花紋魚尾의 형태를 가진 판본이다. 1692년에 내사된 것으로 보아 책의 간행은 그 이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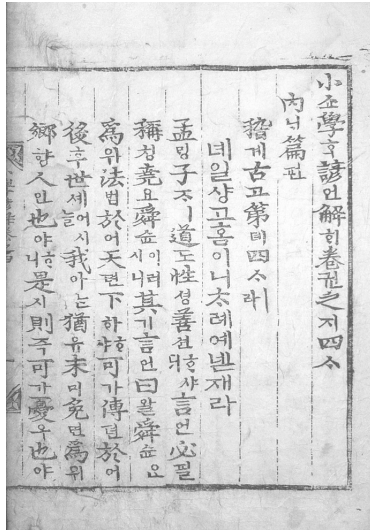
고려대 도서관 소장³⁰⁾의 9행 19자로 된 목판본 『小學諺解』가 이것과 동일한 계통의 책으로 보여지는데³¹⁾ 그 형태를 살펴보면, 卷3~5 零本 2冊으로 邊欄은

29) 개인 소장본으로 卷1~2, 5 零本 3冊이다. 內賜記는 '康熙三十一年八月十五日 內賜 承政院都承旨 金賓 小學言解 一件 命除謝恩 右副承旨臣 李(手決)'로 김주원에 의해 소개되었다.

30) 청구기호: 만송C1A67G2,3.

31) 김주원, “『御製小學諺解』(1744)를 둘러싼 몇 문제,” 『국어사 자료 연구』, 창간호(2000), 141.

四周單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1.3cm, 가로 16.5cm이며 行字數는 9行 19字이다. 魚尾의 형태는 上下內向2~3葉花紋, 有紋魚尾 등 다양하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傍點이나 'ㅇ', '△'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판본으로 영남대 도서관 소장의 2종³²⁾이 더 있다.



<그림 7> 9행 19자 『小學諺解』의 卷首題 부분

4.2.7 영남대 소장 10행 19자 『小學諺解』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0행 19자로 된 판본이다. 이 판본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으로 볼 때 1730~4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³³⁾

전체 6卷 4冊으로 되어 있고 卷頭에는 『小學諺解凡例』, 『小學書題』, 『小學題辭』가 실려 있다.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0.2cm, 가로 16.7cm

32) 청구기호: 古南152.416소학언口v5, 古152.416소학언口v6.

33) 김주원(2000), 144.

이며 魚尾의 형태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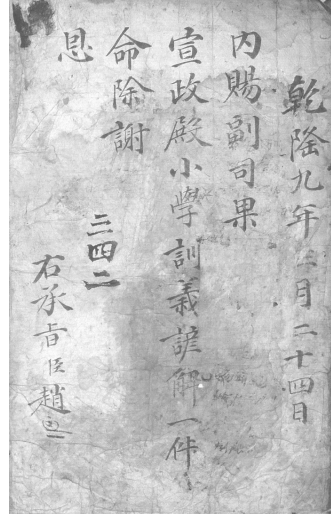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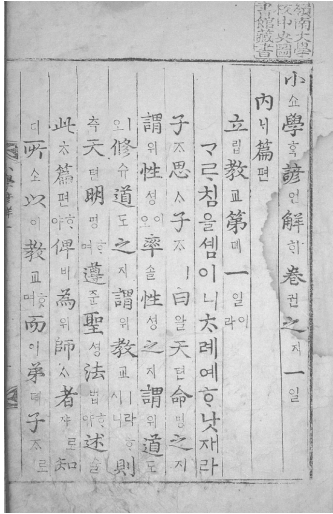
<그림 8> 영남대 소장 10행 19자 『小學諺解』

4.2.8 戊申字本 『小學諺解』

英祖 20年(1744) 王命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卷頭에는 英祖가 직접 지은 御製序가 붙어 있다. 이 책은 宣政殿訓義 『小學諸家集註』가 간행된 1744년에 함께 간행된 것이다.

영남대 도서관 소장본³⁴⁾에는 ‘乾隆九年三月二十四 內賜副司果 宣政殿小學訓義諺解一件 命除謝 恩 右承旨臣趙(手決)’라는 內賜記가 있어 御製序가 쓰여진 1744년에 찍혀져 바로 頒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청구기호: 古152.416소학언.



<그림 9> 戊申字本 『小學諺解』의 卷首題, 內賜記 부분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5.0cm, 가로 17.0cm이며 行字數는 10行 17字이다.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며 『宣賜之記』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같은 시기 任珽에게 頒賜한 內賜本이 소장³⁵⁾되어 있고, 고려대 도서관³⁶⁾, 계명대 도서관³⁷⁾에도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

4.2.9 戊申字 翻刻本 『小學諺解』

英祖 20年(1744)에 찍은 戊申字本 『小學諺解』을 翻刻한 것이다. 경기대 도서관 소장본³⁸⁾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35) 청구기호: 일산古1256-12.

36) 청구기호: 만송C1A67H5,6.

37) 청구기호: (고)180.792영조소증-4.

38) 청구기호: K117947.

24.2cm, 가로 16.8cm이며 행자수는 10行 17자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규장각 소장본,³⁹⁾ 장서각⁴⁰⁾ 등에 동일 계열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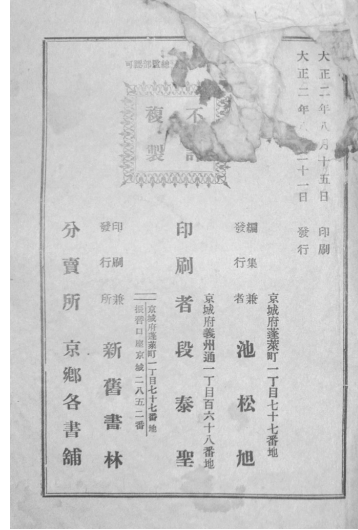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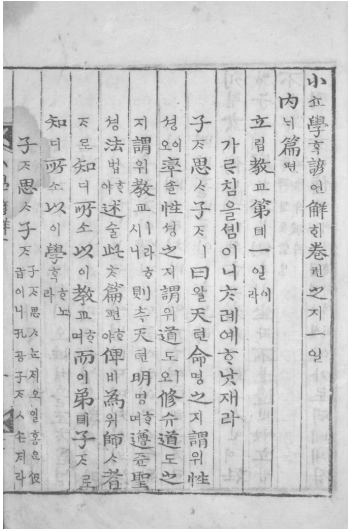
<그림 10> 戊申字 翻刻本 『小學諺解』의 卷首題 부분

4.2.10 1913년 新舊書林 발행 『小學諺解』

‘武橋新刊’이라는 底本 刊記와 1913년 新舊書林 발행이라는 版權紙가 있는 판본이다. ‘武橋新刊’의 刊記가 있는 原刊本은 전해지지 않는데 原刊本은 19世紀末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9) 청구기호: 奎119581-v.1-4.

40) 청구기호: C2123F5.



<그림 11> 1913年 新舊書林 발행 『小學諺解』의 卷首題, 版權紙 部分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⁴¹⁾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6卷 5冊으로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6.4cm이며 行字數는 卷2의 10장까지는 11행 20자, 그 이후는 12行 20字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版權紙에는 池松旭이 編集人으로 되어 있다. 경북대 도서관 이외에도 영남대 도서관,⁴²⁾ 국립중앙도서관,⁴³⁾ 국회도서관⁴⁴⁾ 등에 소장되어 있다.

4.2.11 1916年 七書房 발행 『小學諺解』

1916년에 全州의 七書房, 昌南書館, 京城의 新舊書林, 滙東書館에서 발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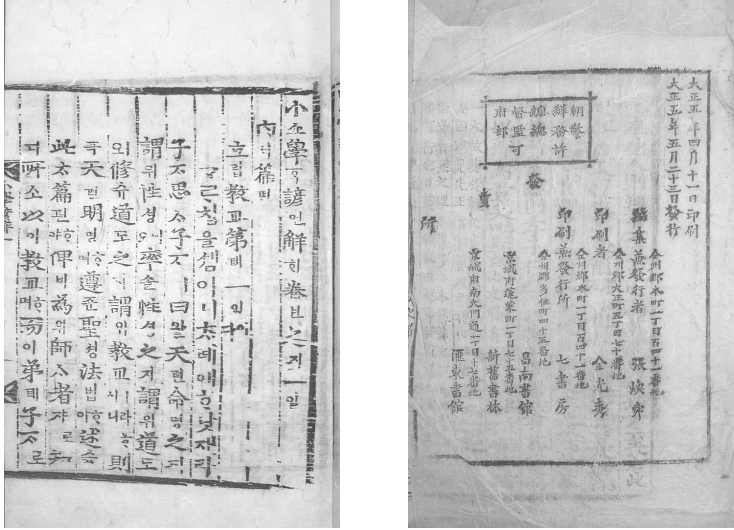
41) 청구기호: 古181.217소91스0(3).

42) 청구기호: 古南152.416소학언07.

43) 청구기호: 古朝41-11-3.

44) 청구기호: 古181.2185스319.

책으로 編集者는 張煥舜이다. 後刷本으로 글자 획이 굵고 판의 마모가 심하여 목리가 나타난다. 이 판본은 戊申字本 『小學諺解』의 飜刻本 계열로 戊申字本과 내용과 체제가 동일하다.



<그림 12> 1916年 七書房 발행 『小學諺解』의 卷首題, 版權紙 部分

경북대 소장본⁴⁵⁾의 형태사향을 기술하면, 6卷 5冊이고 邊欄은 四周雙邊,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2cm, 가로 16.7cm, 行字數는 10行 17字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諺解’이다. 고려대 도서관,⁴⁶⁾ 국회도서관⁴⁷⁾등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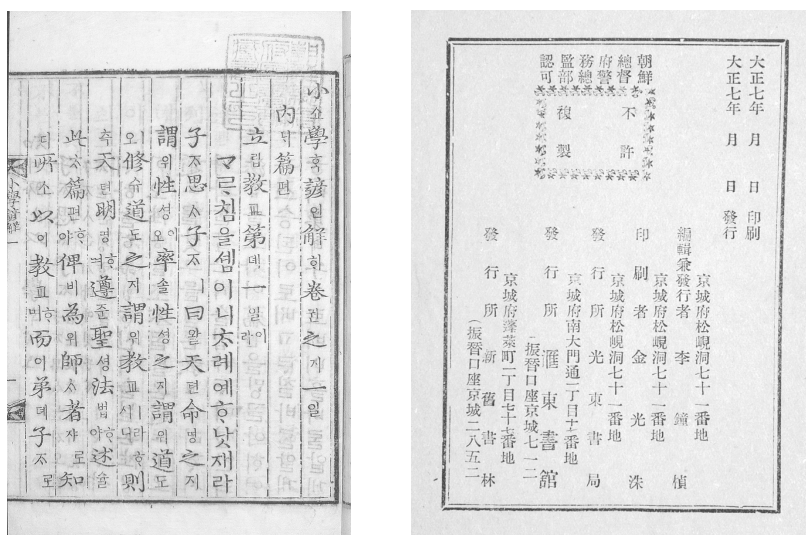
45) 청구기호: 古181.217소91ㅅㅇ.

46) 청구기호: 대학원C1A67Z1,3,4,5, 대학원C1A671,2,3,4,5.

47) 청구기호: 古181.2185ㅅ319.

4.2.12 1918年 光東書局 발행 『小學諺解』

이 판본은 戊申字本 『小學諺解』의 飜刻本 계열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⁴⁸⁾의 卷末 版權紙에는 1918年 京城의 光東書局, 滙東書館, 新舊書林에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림 13> 1918年 光東書局 발행 『小學諺解』의 卷首題, 版權紙 부분

界線과 魚尾가 붙어 있다는 점, 계선의 끊어짐, 邊欄의 모양 등을 볼 때 앞서 소개한 戊申字 飜刻本과는 완전히 다른 판임을 알 수 있다.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6卷 5冊으로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3.1 cm, 가로 16.8cm이며 行字數는 10行 17字이다.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 書鋪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전해지고 있는 책 또한 많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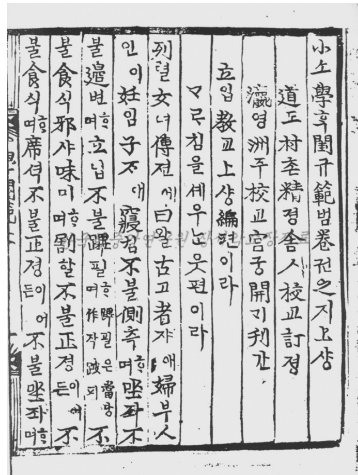
48) 청구기호: 古朝41-11-2.

49) 국립중앙도서관(古1256-2, 古1256-26), 국회도서관(古181.2185s319) 등에 소장.

4.3 『小學閩範』

19世紀에 張寅植이 朱熹의 小學 가운데 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卷頭에는 乙巳年에 張寅植이 쓴 序文이 있는데, ‘옛날에 여자 아이도 일곱, 여덟 살이면 배움에 들어 孝經과 烈女傳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연령별로 여자가 지켜야 할 행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학을 강론하다 여자에게 가장 긴요한 것과 행실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소학규범이라 하고 모든 며느리에게 주어 익히게 하라⁵⁰⁾고 말하고 있다.

序文 다음에는 『小學閩範目錄凡例』가 있고, 본문은 크게 上·中·下篇으로 나누어 上篇에는 立教, 中篇에는 明倫, 下篇에는 善行을 실고 있다. 현재 장서각에는 3卷 1冊으로 된 목판본 1종이 소장⁵¹⁾되어 있는데 卷首면에 ‘道村精舍校訂/瀛洲校宮開刊’이라는 校正기록과 刊記가 수록되어 있어 瀛洲 鄉校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瀛洲鄉校 刊行 『小學閩範』의 卷首題, 刊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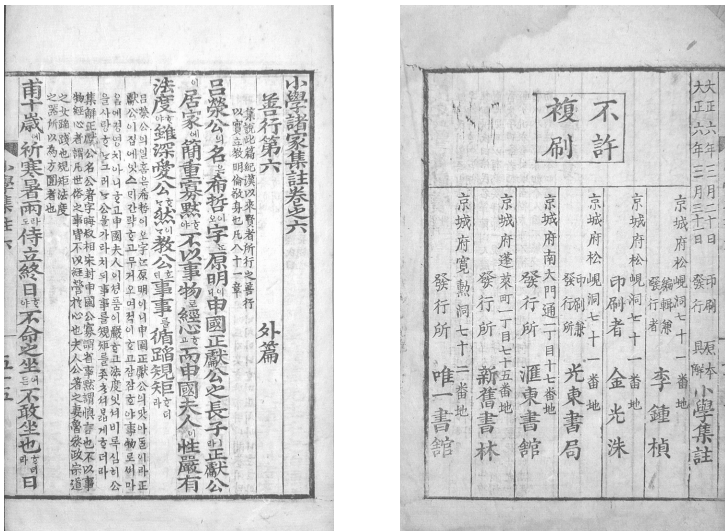
50) 『小學閩範』 小學閩範序.

51) 청구기호: k3-41.

이 책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7.7cm이며 行字數는 10行 17字이다.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閨範’이다. 『海嶠』, 『李王家圖書之章』의 도장이 찍혀 있다.

4.4 『小學諸家集註』

李珥가 편찬한 『小學諸家集註』를 바탕으로 20世紀初에 새롭게 諺解한 책이다. 본문의 大文에 한글 口訣을 달고 이어서 諺解文를 붙이고 있는데 諸家의 해설은 小字 雙行으로 한자로만 표기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의 卷末에는 1917년에 京城의 光東書局, 滙東書館, 新舊書林, 唯一書館에서 발행하였고, 編輯者는 李鍾楨이라는 關권지가 붙어 있다.



<그림 15> 1917年 發行 『小學諸家集註』의 卷首題, 版權紙 부분

경북대 도서관,⁵²⁾ 전북대 도서관,⁵³⁾ 규장각,⁵⁴⁾ 연세대 도서관⁵⁵⁾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18.7cm, 가로 12.6cm이며 行字數는 11行 字數不定이다. 魚尾의 모양은 上下向黑魚尾이고 版心題는 ‘小學集註’이다.

5. 판본분석 및 계통

5.1 판본별 분석

소학의 언해본은 모두 15종의 판본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2종이 금속활자본이고 나머지 13종은 목판본이다. 언해본의 印行에 사용된 금속활자로는 經書字와 戊申字가 있고 실물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乙亥字 飜刻本 『小學諺解』가 있는 것으로 보아 乙亥字로도 印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木板本 13종 가운데 8종이 금속활자본의 飜刻本으로 乙亥字 飜刻本이 1종, 經書字 飜刻本이 4종, 戊申字 飜刻本이 3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에서 맨 처음 금속활자로 인행되어 여러 기관이나 지역으로 頒賜되고 이것을 飜刻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두루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2) 청구기호: 古北181.217소91ㄱ(오14).

53) 청구기호: 동181.2416소학제1-2v.1,2.

54) 청구기호: 一簣古181.1-So250-v.5/6.

55) 청구기호: 고서(II)181.49소학21.

< 표 3 > 小學 언해본의 版本

版本	系列	書名	刊行處	刊行年	行字數
金屬活字	經書字	小學諺解	校書館	1588	10行19字
	戊申字	小學諺解	中央	1744	10行17字
木板	乙亥字 飜刻	翻譯小學	未詳	16세기	9行19字
	經書字 飜刻	小學諺解	校書館	17세기	10行19字
		小學諺解	咸營	1649	10行19字
		小學諺解	濟州鄉校	1685	10行19字
		小學諺解	未詳	17세기	10行19字
	戊申字 飜刻	小學諺解	未詳	19세기	10行17字
		小學諺解	七書房	1916	10行17字
		小學諺解	新舊書林	1918	10行17字
	其他 木板本	小學諺解	中央	肅宗年間	9行19字
		小學諺解	未詳	18세기	10行19字
		小學閩範	瀛州	1845	10行17字
		小學諺解	新舊書林	1913	11行20字
		小學諸家集註 (諺解本)	滙東書館	1917	11行 字數不定

5.2 간행시기별 분석

고려말 소학이 중국에서 국내로 전래된 이후 15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간행, 배포되기 시작했다. 16세기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소학의 大文本과 註釋本의 간행과 함께 주석본을 바탕으로 諺解本이 편찬, 간행되었다. 『小學集成』이 조선에 전래되어 자체적인 간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中宗 13年(1518)에는 이 책을 底本으로 『翻譯小學』을 간행하였고, 宣祖 21年(1588)에는 明나라 程愈의 『小學集說』을 바탕으로 『小學諺解』가 간행되었다. 宣祖朝의 『小學諺解』는 맨 처음 經書字로 인행되었고 17세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校書館, 咸營, 濟州鄉校 등에서 飜刻하였다.

17세기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한국인 편찬의 주석서가 간행되었

다는 것이다. 李珣가 撰集한 『小學諸家集註』는 이미 16세기말에 완성되어 필사본으로 전존해 오다가 비로소 光海君 4年(1612)에 訓練都監字로 印行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 책을 저본으로 새로운 언해본이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顯宗改修實錄』에 1666년에 『小學諸家集註』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해본을 편찬했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고, 『東國通志』 『藝文志』에도 ‘小學諺解 四卷 上同 顯宗朝命弘文館釐正’이라 기록하고 있어 『小學諸家集註』를 底本으로 한 새로운 언해본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肅宗朝에도 『小學諺解』를 간행하였는데, 이것은 肅宗 18年(1692) 이전에 간행된 언해본으로 金賓에게 내사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에 印刊된 판본은 『小學諺解』 2종으로 하나는 英祖 20年(1744)에 御製序를 붙여 戊申字로 인행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언해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肅宗朝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현재 영남대도서관 소장본으로 18世紀初에 간행된 것이다. 宣祖朝의 『小學諺解』를 바탕으로 하고 肅宗朝의 『小學諺解』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는 英祖朝의 『小學諺解』가 번각의 형태로 다양하게 간행되고 이후의 판본들은 대부분이 英祖朝의 『小學諺解』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세기에 張寅植은 소학 중에서 여자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 『小學閨範』을 간행하였고 1917년에는 『小學諸家集註』라는 서명을 가진 언해본이 新舊書林, 唯一書館 등에서 간행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언해 양상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간소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간행처별 분석

언해본의 편찬 및 간행은 정부가 그 일을 맡아 완성하였는데 撰集廳, 校正廳 등 중앙 기관이 번역 작업을 주도하였고 작업이 완성되면 국가 출판기관인 校書館 등에서 간행, 배포하였다.

현존하는 인본을 통해 알 수 있는 간행 지역으로는 咸營, 濟州 鄉校 등이 있으

며 기타 다른 지역에서 간행된 인본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책판목록을 살펴볼 때 보다 여러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1913年 新舊書林에서 발행한 『小學諺解』에 ‘武橋新刊’이라는 底本 간기가 수록되어 있어 武橋에서도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초에는 新舊書林, 滙東書館, 光東書局 등 여러 書舖에서 전해져 오는 金屬活字本을 翻刻하거나 行字數를 바꾸어 木板本으로 다양하게 간행하였다.

< 표 4 > 小學 언해본의 간행처

간행지/간행처	서 명	간행년	판 본	행자수
中央	小學諺解	1692	木板本	9行19字
	小學諺解	1744	戊申字本	10行17字
校書館	小學諺解	1588	經書字本	10行19字
	小學諺解	17세기	木板本	10行19字
咸營	小學諺解	1649	木板本	10行19字
濟州鄉校	小學諺解	1685	木板本	10行19字
瀛州鄉校	小學闡範	19세기	木板本	10行17字
新舊書林	小學諺解	1913	木板本	11行20字
七書房, 昌南書館, 新舊書林, 滙東書館	小學諺解	1916	木板本	10行17字
新舊書林, 滙東書館, 光東書局, 唯一書館	小學諸家集註	1917	木板本	11行字數不定
新舊書林, 滙東書館, 光東書局	小學諺解	1918	木板本	10行17字

5.4 系統

소학의 언해본은 언해본의 바탕이 되는 한문본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개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中宗 13年(1518) 何士信의 『小學集成』을 바탕으로 撰集廳에서 편찬한 『翻譯小學』이고 두 번째는 宣祖 21年(1588) 程愈의 『小學集說』을 바탕으로 校正廳에서 편찬한 『小學諺解』, 세 번째는 李珥의 『小學諸家集

註』를 바탕으로 편찬한 언해본이다. 비록, 실물은 전하지 않지만 顯宗 7年(1666)에 李珥의 『小學諸家集註』에 의거하여 弘文館에서 편찬한 소학언해에 대한 편찬⁵⁶⁾과 간행사실⁵⁷⁾이 실록에 나와 있으므로 이 후의 언해본 또한 『小學諸家集註』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撰集廳 편찬의 『翻譯小學』에 대해 살펴보면, 이 책의 底本이 된 『小學集成』과 같이 10卷 10冊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아동을 비롯한 서민, 부녀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편찬, 간행된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편찬 작업이 완료된 후 中宗 13年(1518) 7月에는 1,300질을 인출하여 朝官과 宗親에게 나누어 주었다.⁵⁸⁾

『翻譯小學』의 체제는 『訓民正音(諺解)』나 경서류 언해본 등과 같은 유형으로 口訣文과 언해문에 나오는 모든 한자에 독음을 달아 번역한 것이다.⁵⁹⁾ 일반적으로 『翻譯小學』에는 ‘빙’, ‘ㅇ’이 나타나지 않고 ‘△’은 쓰이고 있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ㅇ’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ㅎ’은 ‘-이다’를 제외하고는 종성으로만 쓰였다.⁶⁰⁾ 또한 본문내 傍點이 찍혀 있다.

현재 乙亥字本으로 추정되는 原刊本은 전해지지 않고, 16世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乙亥字 翻刻本만이 零本으로 남아있다.

두번째는 宣祖 21年(1588)에 校正廳에서 편찬한 『小學諺解』이다. 이 책은 이전 『翻譯小學』이 너무 의역에 치우쳐 오히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의역이 아닌 직역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程愈 『小學集說』을 底本으로 諺解한 것이기 때문에 『翻譯小學』과는 내용과 체제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으로는 經書字本 1종과 經書字 翻刻本 4종이 있다. 또 이와 동일 계열의 판본으로 6卷 4冊의 영남대 도서관 소장본이 있는데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 行字數는 10行 19字, 魚尾는 上下

56) 『顯宗改修實錄』 顯宗 7年 10月 戊午(條).

57) 『顯宗改修實錄』 顯宗 9年 8月 壬申(條).

58) 『中宗實錄』 中宗 13年 7月 己亥(條).

59) 鄭在永, “『翻譯小學』 卷3·4에 대하여,” 『書誌學報』 第24號(2000. 12), 154.

60) 鄭在永(2000), p.157.

< 표 5 > 小學 注解本の 系統

系統	書名	刊行時期	刊行處	版本	形態事項			表記法の 特徵		
					行字數	半匡	魚尾	傍點	△	○
小學集成系列	翻譯小學	16世紀	未詳	乙亥字 鑿刻本	9行19字	23.6×16.0	上下大黑口 內向有紋	○	○	○
小學集說系列	小學 諺解	1588	校書館	經書字本	10行19字	24.5×16.8	內向3葉花紋	○	○	○
		17世紀	校書館	經書字 鑿刻本	10行19字	23.8×17.2	內向3葉花紋	○	○	○
		1649	咸營		10行19字	23.8×17.0	內向 2葉花紋,有紋	○	×	○
		1685	濟州鄉校		10行19字	23.4×16.7	內向2葉花紋	×	×	○
		17世紀	未詳		10行19字	24.4×17.6	內向2葉花紋, 有紋	×	×	○
		18世紀	未詳	木板本	10行19字	20.2×16.7	內向2葉花紋	×	×	×
小學諸家集註系列	小學 諺解	肅宗朝	中央	木板本	9行19字	21.3×16.5	內向2~3葉花 紋, 有紋	×	×	×
		1744	中央	戊申字本	10行17字	25.0×17.0	內向2葉花紋	×	×	×
		19世紀	未詳	戊申字 鑿刻本	10行17字	24.2×16.8	內向2葉花紋	×	×	×
		1913	新舊書林	木板本	11行20字	22.0×16.4	內向2葉花紋	×	×	×
		1916	昌南書館	戊申字 鑿刻本	10行17字	22.2×16.7	內向2葉花紋	×	×	×
		1918	滙東書館	戊申字 鑿刻本	10行17字	23.1×16.8	內向2葉花紋	×	×	×
	小學 諸家 集註	1917	光東書局	木板本	11行 字數不定	18.7×12.6	上下向黑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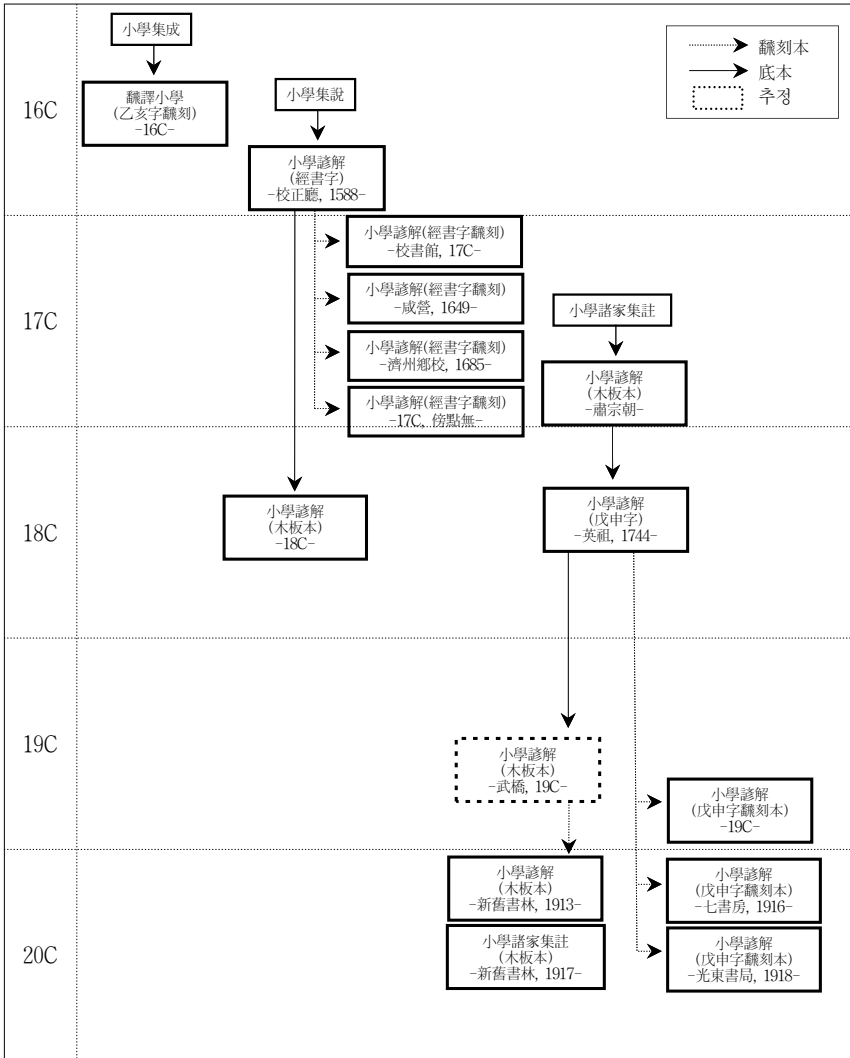
內向2葉花紋魚尾로 半匡의 크기를 제외하고는 經書字本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판본에는 부분적으로 頭註가 나타나는데 頭註에 기록되어 있는 ‘一本’은 肅宗朝에 간행된 소학언해를 지칭하며 이 책을 다수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⁶¹⁾

세 번째는 『小學諸家集註』를 저본으로注解한 것이다. 먼저, 肅宗年間に 편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康熙 31年(1692) 金賓에게 하사한 內賜本의 존재로 확인⁶²⁾할 수 있었다. 간행 시기는 內賜가 이루어진 1692년 이전이 될 것이다. 한편,

61) 김주원(2000), 145.

62) 김주원(2000), 140.

이 책이 顯宗 7年(1666)에 편찬된 언해본을 답습했는지는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6> 소학 언해본의 系統圖

肅宗朝에 편찬된 『小學諺解』와 英祖 20年(1744)에 간행된 『小學諺解』는 형태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내용과 언어 현상에 있어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英祖朝 간행의 『小學諺解』는 肅宗朝 간행의 『小學諺解』를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⁶³⁾ 英祖朝의 『小學諺解』는 戊申字本과 그것의 飜刻本, 木板本 등 다양한 형태로 印刊되었으며, 이후에 나오게 되는 언해본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1913년 新舊書林에서 발행한 木板本을 戊申字本과 비교했을 때 行字數가 11행 20자로 글자의 배열에서 차이가 나고 언어 사용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내용과 체제는 英祖朝에 간행된 戊申字本 『小學諺解』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小學諸家集註』는 1917년 京城의 光東書局, 滙東書館, 新舊書林, 唯一書館 등에서 발행한 책으로 이제까지의 小學 諺解本들이 ‘한자 독음을 병기한 口訣大文과 언해문’을 갖춘 가장 완벽한 체제였다면 여기서는 ‘口訣大文과 언해문’의 형태로 간소화 되었고 형태적인 면에서도 이전 판본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소개한 다른 판본과는 내용, 형태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小學諸家集註』를 저본으로 언해한 것이므로 『小學諸家集註』 계열의 것으로 포함시켰다.

6. 결언

小學은 1187年 宋의 朱熹와 劉清之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를 기본으로 하는 아동용 수신서이다. 소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자 성리학이 들어온 시기와 같이 보고 있다. 조선의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소학 교육이 중요시 되었고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印刊된 소학 언해본의 전체 판본을 개관하고 시기

63) 김주원(2000), 142.

별, 간행처별, 계통별 분석을 통해 소학의 간행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소학 언해본의 판본은 서명을 기준으로 모두 5종이 나타났고, 전국 29곳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 그 중 慶尙道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18世紀後半에 소장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활발하게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英祖, 正祖 대의 소학 장려 정책과 더불어 과거시험에서 講書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소학 언해본의 판본은 서명을 기준으로 총 4종, 판본수로는 모두 15종이 조사되었다. 『翻譯小學』, 『小學諺解』, 『小學閨範』, 『小學諸家集註』 등으로 4종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판본은 16世紀에 간행된 『翻譯小學』이다.

조사된 인본 가운데 금속활자본은 2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판본이다. 언해본의 인행에 사용된 금속활자로는 經書字, 戊申字가 있고 실물이 전해지지 않지만 乙亥字 翻刻本 『小學諺解』가 있는 것으로 보아 乙亥字로도 인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판본은 이러한 금속활자본을 번각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기별 소학 언해본의 간행 특징을 살펴보면, 16세기 中宗朝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小學集成』을 바탕으로 『翻譯小學』을 편찬, 간행하였고 宣祖朝에는 마찬가지로 중국 전래본인 『小學集說』을 바탕으로 『小學諺解』가 간행되었다. 비록 실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顯宗朝에 이이가 편찬한 『小學諸家集註』를 바탕으로 언해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 肅宗朝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본이 현재 전래되고 있다. 한편, 英祖朝에는 왕이 친히 지은 서문을 붙여 새로운 언해본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후의 판본들은 이 英祖朝 『小學諺解』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또, 19세기에는 張寅植이 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小學閨範』을 간행하였고 20세기초에는 언해의 형식이 많이 간소화된 『小學諸家集註』가 편찬, 간행되었다.

간행처별 특징을 살펴보면, 언해본의 편찬 및 간행에 있어서도 한문본과 같이 중앙에서 그 일을 담당하였는데 撰集廳, 校正廳 등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완성되면 校書館 등에서 금속활자로 인행하여 각도의 여러 지역에 반사하였다. 그 후 각 지역에서는 번각의 형태로 다시 간행하여 여러 고을에 배포하였

다. 현재 간행 지역으로 확인되는 곳은 校書館, 咸營, 濟州鄉校 등과 七書房, 新舊書林과 같은 19세기말~20세기초의 여러 서점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소장처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학 언해본은 그것의 저본이 되는 한문본에 따라 모두 3개의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간행된 소학 언해본 판본의 전체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었고 각 유형별 분석을 통해 소학 언해본의 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원문 대조를 통한 본문의 異同과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상사적인 연구와 연계하여 조선시대 소학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단행본

「高麗史」

「小學諺解」

「朝鮮王朝實錄」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김문식, 김정호. 「조선의 왕세자교육」. 서울: 김영사, 2003.

成百曉. 「懸吐完譯 小學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5.

安秉禧. 「國語史 資料 研究」.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5.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_____.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윤호창. 『小學』. 서울: 흥익출판사, 2005.
- 李成茂. 『조선의 사회사상』. 서울: 일조각, 2004.
- 李樹健. 『嶺南士林의 形成과 展開』. 서울: 일조각, 1995.
-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정광, 윤세영. 『司譯院 譯學書 冊板研究』.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3.

2. 논문

- 김약슬. “小學書 및 小學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제6권 제2호(1969). 97-109.
- 김주원. “『御製小學諺解』(1744)를 둘러싼 몇 문제.” 『국어사 자료 연구』 창간호 (2000). 131-149.
- 金駿錫.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東方學志』 제29권(1981). 105-192.
- 朴順南. “高麗末 知識人의 小學 受容에 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제17집(2003). 69-92.
- 박연호. “朱子學의 根本培養說과 朝鮮前期의 『小學』 敎育.” 『淸溪史學』 제2집 (1985). 81-128.
- 이근영. “『小學諺解』에 나타난 음운 변동규칙 연구.” 『論文集』 제28권 제1호(1989). 51-72.
- 李樹健. “朝鮮時代 소학교육에 대하여.” 『嶺南大學校 論文集』 제2집(1969). 249-273.
- 정연봉. “朱子 小學의 人性敎育論과 그 主體의 受容에 관한 연구: 茶山과 進溪의 小學 研究에 주목함.” 『東洋古典研究』 第11輯(1998). 127-164.
- 鄭然植, 趙顯傑. “麗末·鮮初에 있어서 小學 普及의 政治的 意義.” 『社會科學研究』 제4권(1988). 135-161.
- 정영호. “小學의 諺解本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5.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 정재영. “『翻譯小學』卷3·4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4호(2000). 147-227.
-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韓國史學報』 제31호(2005). 111-143.
- 조현규. “小學의 道德教育書로서의 문제점과 한계.” 『教育哲學』 제28권(2005). 49-67.
- 최현정. “소학의 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7.
- 韓寬一. “朝鮮時代 (小學)教育에 관한 研究.” 『教育科學研究』 第2輯(1998). 123-1.